



## 이낙연 '행정수도 회의론' 발언에 세종시 화났다

“정부, 행정수도 이전 흔들림없이 실현해야”... 지역 시민단체 사과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세종시민단체와 지역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문 정부가 구현하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인 행정수도의 정상적 건설에 적극 앞장서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권,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0일 이낙연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

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이 총리는 개헌하면서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고 답했다. “면서 ‘세종시는 일개의 신도시가 아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2004년 실행정수도 위원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면서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극복하고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를 행정중

심복합도시로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적 동의를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고, 대통령 당선 후 원내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 추진에 대해 원내 5당 원내대표에게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3396명의 대상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649%가 찬성하고,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44.8% 찬성, 49.9%의 찬성을 보인 바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개헌 논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최선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도 모

자랄 상황에 이와 같이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이 총리의 발언은 직무유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면서 ‘따라서 책임총리를 구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총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개헌 논의 과정과 여론을 왜곡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 총리의 발언이 맥락이 빠져 있는 실언이길 바라며, 비록 실언이라도 다수의 언론에 의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만약 이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책위는 이 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도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세종시는 21일 보도 자료에서 “정부는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한 차의 흔들림없이 실현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 국회본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보도 자료에서 “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 운영을 세종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대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리실은 이에 대해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 걱정의 취지로, 수도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며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전 대덕구, 2017 을지연습 비상식량 급식체험 훈련 실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21일 구청 구내식당에서 2017 을지연습 훈련의 일환으로 '비상식량 급식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 참가자, 직원 및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비상사태 시 물자공급 차질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부족 상황을 가정해 비상급식 체험을 통해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0→25만원 인상

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30만원 인상

내년 4월부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00원에서 약 5만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인구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선 기자

2017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

## 국가비상사태 대비 통합방위역량 강화

권선택 대전시장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2017 을지연습 공무원 비상소집'을 열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통합방위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권 시장은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장거리탄도탄 발사와 광 타격

위협과 이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대응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훈련은 이 같은 우발적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방위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권 시장은 을지연습이 기

존 판 주도에서 영역을 넓혀 시민이 참가하고 함께 하는 훈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우리시 훈련 상황에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면 효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을지연습 우수 지자체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영호 기자

## 충남 '살충제 계란' 농가 2곳 추가 확인

진류물질 보관검사서 검출...유통 점검서는 10곳 압류·폐기

충남도 내에서 '살충제 계란' 농가 2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동물위생소가 검사한 64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8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보관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아산 초원농장(11초원)과 청양 시간과 자연농장(11시간과자연)의 계란에서 검출되는

안되는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도내 살충제 성분 검출 부적합 계란 생산 농가는 모두 10곳으로 늘게 됐다. 도는 이번 2개 농가에 대해서도 계란 출하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보관 계란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도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10개 농가에 대해 집중 관리

를 실시하고, 입입검사를 통해 계란 출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살충제 부적합 농가가 보관했거나 시중에 유통시킨 계란 193만 5000개를 폐기했다. 시중에 유통시켰으나 회수하지 못한 79만 3000개의 계란은 추적 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19~21일 도내 마트, 제과점, 계란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계란 유통 긴급점검을 병행해 실시했다. 도와 시·군 위생 인력 42명을 투입해 92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도는 아산·태안 계란 업체, 논산·부여 지역 마트 등 10개 업체에서 부적합 계란 6313개를 발견해 전량 압류·폐기 처분했다.

도는 살충제 계란 시중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 부적합 계란 발견 즉시 현장에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추석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진행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대표이사 황용득)는 지하2층 식품관에서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1일간 추석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김정환 기자

#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 EXTRA DRINKABILITY | CHEERS! KOREA

노력 끝에 300여명 중 1명만이 선정된 최우수 품질의 비어

최고의 맥주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담은 최우수 품질의 비어

세계적인 맥주의 브랜드

간접에 공헌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모두가 즐기는 하이트



# 산학맞춤형 교육... 한국대표명장 양성 명문대학

## 오송 우송정보대학

우송정보대학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환경과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대표명장을 양성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외국인 교수진이 100% 영어로 강의하는 솔 인터내셔널 스쿨을 신설, 글로벌 명품조리과, 글로벌제과제빵학부(글로벌제과제빵전공, 일본제과제빵전공), 글로벌호텔외식과, 글로벌실용음악과 등 4개 학과에서 국제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취업성공을 위한 산학맞춤형 교육, 실용학문 기반의 창업 특성화 프로그램,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십 글로벌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운 결과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가공인 기술훈련기관' 과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스' 사업 주관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었다. 특히 우송정보대학의 '1년 4학기제', '블록제 수업', '캡스톤디자인'은 돋보이는 특성화 교육시스템이다. 이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습과 현장 중심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2학년 마지막 학기는 '커리어 학기'로 국내외 현장실습을 강화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연계되도록 했다. 대전투데이는 2018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최근 우송정보대학에서 뜨는 학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 가장 빨리 '한국대표 명장'으로 성장한다.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창의적 실용교육에 충실한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우송정보대학은 글로벌 교육환경, 특성화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장 빨리 '한국대표 명장'으로 성장시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이다.

2014년, 솔 인터내셔널 스쿨(Sol International School)을 신설해 외국인 교수진이 100% 영어로 강의하며 국제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취업성공을 위한 산학맞춤형 교육, 실용학문 기반의 창업 특성화 프로그램,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십 글로벌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우송정보대학은 2015년 교육부 대학교소개혁 평가에서 '전국우수대학' 평가를 받았고,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중소기업청 주관 '산학맞춤형 기술인력양성 사업'에 참여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사업인 'K-Move'에도 선정되어 청년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 ▶ 스마트로봇자동화과

스마트로봇자동화과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혁명시대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기계전자자동화과를 2017년에 개편한 학과이다. 자동화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과 운용, 스마트로봇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훈련 능력 등 정보통신기술과 로봇 자동화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첨단과학기술 우송정보대학 동 캠퍼스내 테크노관 6층은 수석역원의 정부지금을 지원받아 최고의 기자재를 갖춘 전국최고의 실습실로 꾸며졌다. 로봇 실습실, 유·공압 실습실, 컴퓨터프로그래밍 실습실, CAD/CAM 실습실, PLC실습실, 자율학습 실습실 등이 있다.

특히, 최신형컴퓨터, 3차원 프린터는 물론 로봇 실습실에는 최신 파나 6축 다관절 로봇과 직교좌표 로봇이 설치되어 있고, PLC실습실에는 국내 대기업 제어로 많이 쓰이는 통합형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 최고의 실습환경 자랑한다.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해 1, 2학년 과정은 특별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진행한다. 1학년은 융합캡스톤 디자인 교육, 수업만 들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노동고용부 과정평가형 특별반 프로그램, 로봇 경진대회, 드론 경진대회,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학년엔 산업자동화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습위주의 교육, 다양한 기업들과 기술·취업 협력을 맺어 기업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 애견동물학부 애견미용전공

선진적인 애견미용 기술을 갖춘 글로벌 명품 애견 미용사를 양성하는 학과다. 국내 및 일본 최고 교수진, 우송애완동물아카데미내 최신 시설을 갖춘 실습실이 가장 큰 장점이다. 원어민 교수가 일본어를 교육시키고 일본 로얄 그루밍학원 등과 단기연구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글로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애견과 함께하는 기숙사와 본관 내 애견보호소를 두는 한편 학과 건물 1층에 '솔햇애견미용샵'을 열고 애견미용창업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중심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교육환경을 구성해 놓았다.

매 학기 명장주간마다 블록식 실습위주의 집중 교육을 통해 실무기술을 향상시키고, 애견미용경진대회를 열고 입상자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있다.

애견미용사, 핸들러, 동물관리사 및 훈련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졸업 후 애견미용샵, 펫샵, 애완동물병원, 애견미용실 등을 창업할 수 있고 브리더, 핸들러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 ▶ 일본의식조리학부일본제과제빵전공/일본외식조리전공

2017년에 신설된 학부로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추고 미래 외식산업에 선도해나갈 글로벌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한다.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일본 외식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인 교수진의 교육을 통해 일본의 정서를 살린 지식과 산업현장기술, 실무수행능력을 교육받을 수 있다. 일본어 강의로 진행되는 수업, 주당 12시간 이상 일본어 집중 교육, 국내·외 인턴십 및 연수를 통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일본의식조리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일본 유명 제과제빵대학 연수, 일본 제과제빵업체에 인턴 및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일식조리기능사, 국내 및 해외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케이크디자이너, 베이킹마스터, 샌드위치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졸업 후 호텔·레스토랑·대형제과점 제과사 및 제빵사, 제과제빵 관련 교육기관 강사, 제과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신제품 개발, 전문가, 식자재 유통회사, 케이크디자이너, 설탕 공에서, 조물릿 공에서로 활동할 수 있다. 외식산업체, 프랜차이즈회사, 식품 연구소, 관련 컨설팅회사, 케이터링 업체를 창업할 수 있고 호텔전문식당 조리사,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음료관련 연구소, 요리전문가로 취업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 편입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정복 기자



# 병원비 걱정 없으니까 이젠 허리펴고 살겠네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1** 국민 건강보험 가입에 참여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검진 등)

**3**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검진 등)

**4**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검진 등)

**5**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검진 등)

**6**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검진 등)

**7** 국민건강보험 가입하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검진 등)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 더 많고 ·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앞장

## 청양군, 청년 일자리 · 지역 특성화된 일자리 창출에 온 힘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전 실현을 위해 청년 일자리 및 지역 특성화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국정 운영 방향에 부응해 4869개 일자리 창출, 고용률 80%, 취업자 수 2만1300명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 산업 동향, 고용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그간의 분야별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양군은 인구 3만2000여명으로 충남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또 고령화율이 매우 높고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화 정도가 낮은 수준이다.

경제규모는 계통시 다음으로 가장 작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 비중이 소폭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

3000 이상 큰 규모의 기업이 없다는 점이 어렵지만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시사점을 반영해 ▲공공분야 ▲청년분야 ▲여성분야 ▲사회복지(노인 · 장애인 분야) ▲소상공인 ·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문화관광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타 창

업지원 등 8개 분야별로 양질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대책본부를 구성해 신규 시책발굴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올해 지역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하고 지속성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인턴 채용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56명을 채용했으며, 청년상인 5명을 선발해 점포 인테리어, 창업교육, 임대료를 지원했다.

앞으로 재정지원 공공행정 직접 일자리 창출로 노인 및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일꾼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 고용률 79.8%로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어 희망이 보인다"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과제 발굴 및 논의를 활성화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 아산시 '문화재단' 조직 · 정관 등 재정비

아산시 문화관광과(과장 이상득)와 아산문화재단(상임이사 맹주완)은 아산시각사위원회 감사결과 및 시민의 대표기관인 아산시의회의 요구사항과 인원의 질책을 겸하여 받아들여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나누고 상생하며 문화발전을 이루는 문화사랑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문화관광과와 아산문화재단은 지난 7월, 재단사무실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정관과 규정을 재정비 보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겸한 다짐의 시간을 갖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인적개편 및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경영지원팀(팀장 1인, 팀원5인), 문화예술팀(팀장1인, 팀원5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사적으로 비어있던 팀장, 축제담당, 회계담당을 투명하게 공모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모든 수익계약, 예산 사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일부 정관 및 규정 미비로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맞도록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또한, 아산문화재단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더욱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지역예술인(한국예총아산지회, 운양문화원 등), 시의원, 언론인 등이 함께 하는 1차 토론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시민들의 진솔한 여론을 수렴해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정체성을 확보해 아산시민에게 더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득 문화관광과장은 "아산문화재단 임부직원의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시민들이 속상해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는 것과 지역예술인들의 흥을 돋우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아산문화 선도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의회와 언론의 질책을 달게 받고 새롭게 도약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예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성료한 신정호 별빛축제에서는 아산시(문화관광과), 아산문화재단, 삼천디스플레이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축제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열렬한 호응으로 어느 때보다도 멋진 축제가 됐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아산문화재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KT&G 앞담배 수확 봉사 진행 '11년째 꾸준한 상생 실천'

KT&G(사장 백복인)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앞담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충남 지역에서 수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앞담배 농사는 무더운 7~8월에 수확이 집중되며, 기계 화가 어렵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농가들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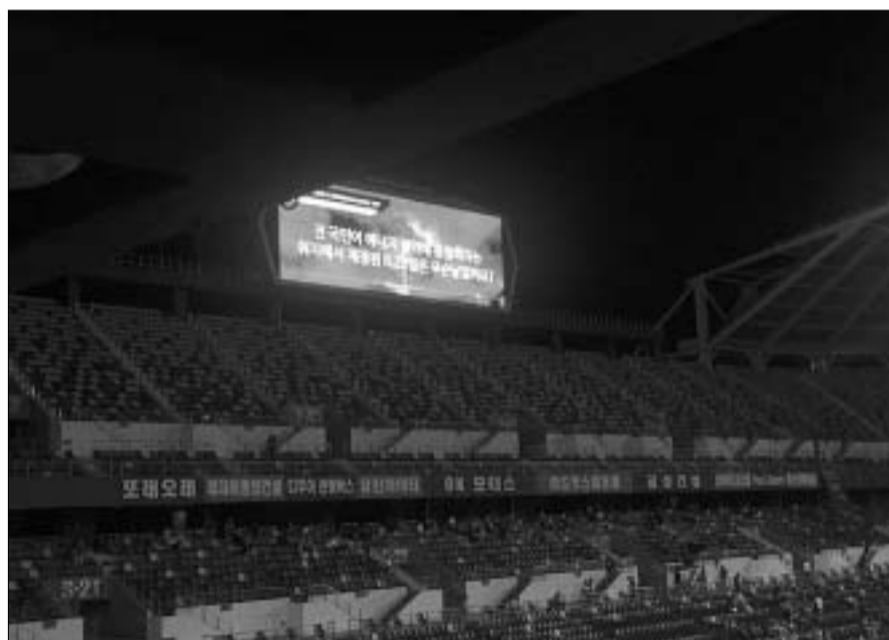
KT&G는 이러한 농가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봉사활동을 실시해 농민들과의 상생을 지속해 오고 있다. 올해는 주요 산지 중 하나인 충남 천안시 성남면 일대에서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앞담배 수확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등 보양식을 제공하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KT&G는 국내 영업 중인 담배업체 중 유일하게 국산 앞담배를 구매하고 있으며, 농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작인별 앞담배 예정 판매대금의 30%를 사전 지급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앞담배 경작농민의 건강검진비와 자녀 장학금을 위해 총 1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 복리후생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태선기자

## 에너지공단 대전충남 '에너지의 날' 기념 에너지 절약 홍보

대전월드컵경기장서 체험 · 퀴즈 이벤트 등 에너지 절약 동참 유도



한국에너지공단 대전 ·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이재훈)는 지난 20일 대전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시티즌 홈경기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정보 제공, 에너지 체험 및 이벤트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 시작 전 5시부터 경기장 입구에서 진행된 자가발전 자전거, 에어프렌, 태양광 자동차 경주 등 다채로운 에너지 체험 행사와 에너지 절약 톨렛 퀴즈 이벤트, SNS 공유 이벤트 등에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마스코트인 SESE(Save Energy, Save Earth)의 시뮬레이션과 하프타임 에너지 퀴즈 전광판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정답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전달됐다.

송병배 기자

## Q&A로 알아보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5)

Q. 조정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A. 조정을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1

억원 미만 1만원, 1억 원 ~ 3억 원 미만 2만원, 3억 원 ~ 5억 원 미만 3만원, 5억 원 ~ 10억 원 미만 5만원, 10억 원 이상 1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소정의 경우

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A. 만일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정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 충남농협 금산군 명예이장 활동 활발히 전개

서대2리 명예이장 마을 찾아 사랑의 축산물 전달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찬형)는 지난 19일 올해 3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김정섭 부분부장이 명예이장으로 인연맺은 금산군 추부면 서대2리 마을을 찾아 「사랑의 축산물(삼계탕)」을 전달하고 마을 주민들을 보살피는 등 명예이장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섭 명예이장을 비롯해 권기홍 금산군지부장, 전순규 만인산농협 조합장과 금산군지부 및 충남지역본부 농촌지원단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로당에서 마을대표인 김지식 이장에게 삼계탕을 전달하며 훈훈한 나눔의 정을 실천했다.

김정섭 명예이장은 "앞으로도 마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대2리 명예이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농협은 금년도 또 하나의 마을 만



들기 운동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해 신규 명예이장 위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편, 결연마을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펼쳐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 “기업이 꼽은 면접 탈락 1순위 지원자는”

## <사람인>조사결과...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지원자’ 1위 차지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업 시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꼽히는 면접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구직자들이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비매너 면접 지원자 유형’에 대해 기업 인사담당자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지원자(55.6%), 복수응답(1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성의 없이 답변하는 지원자’(49.7%), 본인의 지원서 내용을 모르는 지원자(46.3%),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차림의 지원자(38.4%),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지원자’(37.2%), 다리뺨기 등 자세가 불량한 지원자(34.7%), ‘표정이 좋지 않은 지원자’(34.7%), ‘입·퇴장 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지원자’(2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비매너 지원자에 대해서는 ‘갑절 처리한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5%였으며, ‘무조건 탈락’이 43.8%로 기업 10곳 중 9곳은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불이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성도 중요한 평가요소여서’(61.7%),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사회 생활의 기본이 안되어 있어서’(49.4%), ‘입

사 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30.7%), 회사의 인제상과 맞지 않아서’(28.8%) 등이 있었다. 실제 인사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보는 비매너 면접 지원자들의 비율은 평균 36%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30%’(23.8%), ‘20%’(17.8%), ‘50%’(15.9%), ‘10%’(12.8%), ‘40%’(12.8%)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면접 매너가 채용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인사담당자의 97.2%는 ‘영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80.7%는 우수한 스펙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면접 시 비매너로 인해 불합격시킨 경

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면접 매너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평균 52%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50%’(20.6%), ‘30%’(16.7%), ‘60%’(11.3%), ‘80%’(10.9%), ‘40%’(10.6%), ‘70%’(10%), ‘20%’(6.4%) 등이었다.

한편, 인사담당자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의 면접 매너 점수는 ‘80점’(29.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외로는 ‘70점’(18.4%), ‘50점’(12.2%), ‘60점’(10.3%), ‘30점’(9.1%), ‘90점’(8.1%), ‘40점’(4.4%)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정복기자



### 공주교육지원청, 2017 을지연습 본격 실시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으로 비상대비능력 향상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이 21일부터 3박 4일간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국가위기상대 시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17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21일 공주교육지원청 연습장(교육장 이연주)에게 공무원 비상소집 및 응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을지연습 기간 중 전시직제전환 절차 훈련, 지원청 직

원 및 각급학교 교감 대상 안보교육, 심폐소생술 훈련, 북한 핵 위협 대응 교육 등이 실시된다.

특히 21일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통일 교육 전문교수를 초청해 실시한 ‘다이나믹 코리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안보강연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준비된 전시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공주=정상범기자

### 2학기, 충남형 자유학기제 본격 출발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2년차를 맞아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오는 2학기부터 충남형 자유학기제를 도내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마을과 함께하는 충남형 자유학기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1학기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전중학교이외에 도내 186개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오전에는 기존과 같은 교과수업을, 오후에는 수업과 연계한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4개 영역에서 1주일에 10시간 이내의 자유학기 활동을 하게 된다.

그동안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교사학습공동체 연수를 통해 교실수업개선에 주력하고, 학부모 연수를 통해 자유학기의 취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체면이 집중되는 10월 셋째 주에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학생 사전 안전교육 및 진로 체험 안내서를 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 충남도교육청, 자체감사업무 매뉴얼 발간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및 품질 향상 위해 발간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자체감사업무담당자 및 감사실 신규 직원인 감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 자체감사활동의 내실화 및 품질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감사업무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이번 ‘자체감사업무 매뉴얼’은 감사공무원의 감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화된 감사절차, 교무·학사 및 행정 분야별 감사사례, 감사실시 단계별 업무처리 실제 등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

도교육청은 매뉴얼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감사관실 근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감사업무매뉴얼 집담(T/F)’을 구성해 매뉴얼 발간을 추진했으며 감사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담았다. 아울러 감사문장 바로쓰기와 관련법령을 부록으로 담았다.

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이번 매뉴얼은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 및 관계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체감사업무 매뉴얼 보급을 통해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나아가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장터 통한 청렴계약 실천 앞장서

2017년 상반기 학교장터(S2B) 이용률, 지난해 대비 27.12% 증가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은 올해 상반기 학교장터(S2B) 이용건수가 2,489건으로 지난해 대비 27.12% 증가, 이용금액이 29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도 향상의 방안으로 각급 학교에 학교장터(S2B) 이용실적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고, 지난 5월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효율성 증진을 위한 학교장터(S2B)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6월 학교장터(S2B) 사용실적이 우수한 10개 학교 행정실장을 초청해 건전한 예산집행 노력을 격려하고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S2B)의 이용을 꾸준히 독려하고, 청렴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간담회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이병호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도 학교장터(S2B)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대전교육 공직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홍성교육지원청,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홍보활동 ‘호응’

환경정화 활동 통한 2017년 을지연습 홍보와 청렴캠페인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은 지난 17일 관내 청렴 동아리 구성원과 교육지원청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2017년 을지연습 홍보와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폐교된 장곡초등학교 오서분교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오서산 등산 진입로에서 을지연습의 중요성과 청

렴한 홍성교육을 알리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고옥심 교육장은 “홍성의 고장 홍성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깨끗하고 당당한 홍성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쳐 달라”고 전하며, 더위에 환경정화활동으로 땀 흘린 직원들을 격려했다.

홍성교육지원청은 2017년 을지연습에서 ▲ 전시 비상식량 체험 ▲ 안보체험 및 군정비 전시회 ▲ 나라사랑 안보교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을지연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청렴도 향상 수준 측정 5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홍성=김정환기자

### 금산교육지원청, 2017년 을지연습 연계 안보강연 실시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8월 21일 을지연습 첫날 교육지원청 전 직원과 관내 학교 교(원)장 70여명을 대상으로 생생한 안보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국가보훈처 남상현 나라사랑전문강사를 초청하여 ‘한미동맹의 의의’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근 북한의 실상과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실시하여 공직자가 가져야 할 국가안보 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회천 교육장은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안보강연회가 공직자들의 안보의식을 다시 한번 제고해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정전민기자



세종시교육청, 발명가의 꿈을 향해 한걸음 더 전진



충남조선공업고, 소속감·시명감 고취 위한 교직원 워크숍



이산교육지원청, 을지연습 안보강연회 개최



“우리가 함께 쓰는 여름이야기”

### 산림복지진흥원, 복권기금 녹색자금 장학금 수여식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운영관은 21일 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임업인과 산림분야 종사자 자녀, 산림청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등 학업장학생 195명을 선발, 장학금(총 1억 91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임업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선발된 학업장학생은 대학생 20명(1인당 300만 원), 대학생 4명(1인당 100만 원), 대학생 인턴 장학생 133명(1인당 50만~100만 원) 등 총 195명이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업과 진로 선택 등 꿈과 희망을 주고자 신차선 박사평화를 만드는 학교장의 ‘아이큐(IQ), 재능, 환경을 뛰어넘어 탁월한 미래를 만드는 열정적 성공의 힘’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김관석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무처장(녹색장학사업 운영위원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의 복지증진과 산림분야의 전문기 양성을 위해 녹색장학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동 정 ●●●

을지연습 실제훈련



김석환 홍성군수 = 22일 오후 2시 30분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되는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참석.

을지연습 훈련현장 방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22일 오전 11시 20분에 당진교육지원청, 오후 3시에 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훈련현장을 방문.

을지훈련 학교재배치훈련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22일 오전 10시 새뜰중학교와 새움중학교에서 열리는 「2017 을지훈련 학교재배치훈련」에 참석.

2017/2018 우수여행상품 공모

예산군 '함께가유-예산' 선정

예산군은 한국여행업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우수여행상품 공모에서 내국인 국내여행으로 '함께가유-예산(1박 2일)' 상품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2017/2018 우수여행상품 선정 사업은 건전하고 안전한 여행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여행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여행사 대상으로 총 586개의 상품이 접수돼 그중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60개와 외국인 국내여행상품 50개, 내국인 국외여행 상품 50개 등 총 160개의 상품이 선정됐다.

군이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부문으로 선정된 '함께가유-예산' 상품은 군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예산항새공원 △수덕사 △봉수산자연휴양림 △광시 한우마을 △덕산온천 족욕장 △알토란 사과마을 등이며 1박 2일 코스로 이뤄져 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지난 2016년 4월 18일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선정 선정됐으며 군은 가을 시즌을 맞이해 적극적으로 군의 관광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함께가유-예산' 여행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 관련 웹페이지와 모두투어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충남도,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도정' 만든다

“공무원 정책 추진의 확산·성과 향상”

충남도가 민선5·6기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는 민관협치(거버넌스) 정책 가치 공유와 문화 확산에 주력,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체제를 구축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부터 민관협치를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정보 공유 △거버넌스위원회 활성화 △지속가능한 비전 수립 △중간지원조직 육성 △민(民) 거버넌스 중심 정책 집행 △도민을 통한 도정 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서 도민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왔다.

도는 그러나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도정 구축을 위해서는 부서별 추진 편차 극복, 일부 공직사회의 거부감 해소, 민관협치 체감도 향상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민관협치 교육 및 포럼 개최 △전략과제 선정 및 집중 관리 △충남 민관협치 선언 등 협치 문화 확산 3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관협치 교육 및 포럼은 민관협치 주체의 역량 강화 및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 목표다. 맞춤형 협치 교육은 연 20회, 도

정 주요 시책의 협치 수준 진단을 위한 협치 포럼은 연 5회에 걸쳐 실시한다.

전략과제는 민관 협업 과정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4개 과제를 선정, 민관협치 현장 전문가로부터 3년 동안 맞춤형 및 착 지원을 받게 된다.

4개 과제는 △양성평등 △학교(공공)급식 △시·군 마을 만들기 △에너지 전환 비전 수립 등으로, 민관 공동 문제 해결의 모범 모델로 구축·확산해 민관협치에 대한 공직사회의 업무 부담감을 극복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의 민관협치 의지를 안팎에 알리는 '충남 민관협치 선언'은 시기를 올해 12월로 잡았다.

이 선언에서는 민선5·6기 민관협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도정 민관협치 의지 선언 및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책무를 상호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 선언을 통해 '민관협치'는 도정의 일상적인 프로세스이며, 그 주인공은 '도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이윤선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일상적인 민관협치 실현을 목표로, 민선 5·6기 동안 추진된 민관협치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치 문화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민관협치를 통해 주권자인 도민에게는 도정 참여에 따른 만족감을, 실무자인 공무원에게는 정책 추진의 확산과 성과를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2017 을지연습 돌입

충남도는 21일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최초 상황보고회를 시작으로 '2017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오는 24일까지 3박 4일 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군과 32사단, 도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중점관리업체 등 도내 190개 기관·업체 6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을지연습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등에 따른 안보 위협 상황에서의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이를 통한 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 안전 보장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중점 추진 방향은 △국지 도발 및 각종 위기에 대한 상황 조치 대응 능력 배양 △전시 작제 편성 훈련 △주민 참여 확대 및 국민 안보 의식 고취 등으로 잡았다.

세종시보건의료 어린이들 건강교육 나서

세종특별자치시보건의료소(소장 이강산)가 관내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교육을 통해, 총지배방 등 건강교육에 나섰다.

보건의료는 영구치가 나기 시작

세종시 대한민국 관광박람회 참가

“시 관광자원 국내의 널리 홍보... 관광객 유치 나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7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

24-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관광산업 분야 국내 최대 종합축제의 장으로, 전국 지자체와 국내외 300여개 업체가 참가,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슬로건으로, 세종호수공원, 대통령

기록관 등 주요 관광지와 세종축제, 장군산구절초꽃축제 등 대표 문화행사를 홍보한다.

또 영평사의 다식 만들기 및 다도체현을 통해 관람객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이훈준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올해 2회제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세종시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홍성군 저출산 극복에 온힘

인구절벽 해소, 인구증가종합대책반 출범 등 행정력 올인

홍성군이 저출산 극복 및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육아지원정책을 기본으로 외부 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그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 그리고 살고 싶은 홍성군을 만드는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에 홍성군은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실화되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홍성형 일자리 창출 ▲전입세대지원 ▲귀농·귀촌 지원 ▲출산·육아지원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굴한다.

군은 이미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시책 사업관련 8개과 11개 팀으로 구성된 인구증가 종합 대책반을 지난 8월 출범한 바 있다.

9월 중 인구증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분기별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운영에도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 등 홍성형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 방안 및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과 더불어 실천 가능한 맞춤형 시책을 중점 발굴하는 한편, 시행중인 시책도 적

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은 첫 시책으로 오는 9월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와 연계한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파더스쿨'을 7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16개소 어린이집, 약 350명의 신청자가 접수된 상태이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등 참신한 교육주제 운영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통해 가족친화형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홍성군의 2015년 7월 기준 인구는 92,826명, 2016년 7월 기준 98,113명이었으나 2017년 7월 101,290명을 기록함에 따라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이례적인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군중 압도적 1위 수치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인구는 지역발전 및 경제성장의 기본동력으로 우리군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인구 증가를 위해 일자리·출산·육아공존에 중점을 두고 입체적이고도 공격적인 정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정환기자

예산군 토종붕어 3만여 마리 예당호에 방류

예당호 어족 자원 보호·어업의 지속발전 도모



예산군은 예당호의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당호에 토종붕어 3만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붕어 방류는 군과 예당내

수면 어업계가 함께 진행했으며 수산 자원의 산란장 및 서식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당호가 그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어족 자원이 감소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예산=양영범기자

관내 호프집 야식집 특별 단속

홍성군, 오는 9월 4~29일까지... 법질서 확립 실현

홍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군민 다수가 애용하는 관내 호프집·야식집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법질서 확립을 실현하고자 계획됐다.

군은 호프집 영업시간이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 이고 야식집 또한 배달음식이 고객에 볼 수 없는 곳에서 조리되는 특성상 위생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한다.

또한, 군민들이 편리하게 전화 주문을 통해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 앞으로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위생단속이 필수인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 영업신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냉장 식품의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여부 등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부터 면밀히 살피게 되며 가벼운 시안은 계도하되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2017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도 적극 홍보한다.

김윤호 안전총괄과장은 "군민과 관광객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야식집에 대한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김정환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text describing the design philosophy and contact information.

우리/동/네

# 자체 완화의료병동 구축 전국 최초

## 태안군, 8개 병실 16개 병상 운영... 이달부터 본격 개방

태안군이 완치가 어려운 말기환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전국 보건의료원 중 최초로 자체 완화의료병동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군, 보건의료원은 말기암 환자 등 통증경감 및 완치가 어려운 말기환자와 해당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부터 완화의료병동(호스피스 병동) 구축에 돌입,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부터 군민에 개방했다.

완화의료란 환자 및 보호자의 신체적·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완화의료병동은 전국 보건의료원 중 유일하게 보건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병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완화의료병동 설치에 태안군의 제2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군은 지난해 총 9억 1천만 원을 들여 본관 증축(188㎡) 및 개·보수(807㎡)를 실시하고 위 내시경 1대, 전해질 분석기 1대,



고압멸균기 1대, 치과 유니트 2대, 환자용 침대 32대 등 5종 37대의 의료장비를 교체 및 보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군은 일반환자용으로 활용되던 병실 4개소를 완화의료 병실로 전환하고 폐쇄된 수술실 및 보조시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물리

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노인부와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대신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등 환자 및 가족들에게 시간적·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돌봄 서비스 제공과 임종심(평화의 방)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환자 및 가족의 스트레스 감소와 보건의료원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완화의료병동의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환자 및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체 완화의료병동을 운영하게 됐다"며 "완치가 어려운 말기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배방읍,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기져 아산시 배방읍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홍단순, 이연순)는 8월 18일 어려운 이웃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랑의 김치나눔행사를 가졌다



## 새콤달콤 해나루 포도 출하 한창

포도생산 최적지 당진 순성면 분리농가서 생산

따스로운 보릿밭 포도가 일일이 영그는 8월 제철과일로 맛과 향이 뛰어난 당진 해나루 포도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돼 소비자들의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달 초 가화포도의 재배지인 당진시 순성면 분리에서 조기출하 하우스용 포도가 출하되는데 이 어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일조량이 높았던 올해 기온의 영향으로 출하시기가 1주일 정도 앞당겨진 껍질이 출하되고 있다.

포도 출하가 한창인 순성면 분리는 30여 호의 농가에서 20여 ha에 걸쳐 껍질을 주품종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형이 움푹 들어갔아 비뺨을 타지 않고 물 빠짐이 좋은 모래가 섞인 사질토양이 풍부해 최적의 포도재배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포도에는 비타민과 유기산, 수분과 당분이 많아 피로 해소에 좋고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며 "입맛과 기력을 잃어버리기 쉬운 요즘, 시원하고 달콤한 해나루 포도로 갈증을 해소하고 기력을 회복해 막바지 더위를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 해나루 포도는 순성면 분리 재배농가와 거리 직판장에서 직거래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아산시 어린이 식품안전 전담관리원 교육 실시



아산시는 지난 18일, 별관 워크숍룸에서 어린이 전담관리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전담관리원 17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이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이해와 활동 사례, 어린이 전담관리원의 자격 등의 내용으로 이승환 식품안전팀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0명 중 17명을 전담관리원으로 위촉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김형미(은양문화원 소속) 전담관리원은 "이번 전문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학교 주변 계도 활동뿐 아니라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 식품안전 사고 예방과 어린이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2009년 3월 어린이 영양·위생·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및 학교주변(200m 이내) 문구점·편의점·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고열·저영양 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관리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57건 발굴

당진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열려... 우수사례는 공유

당진시는 21일 김홍장 시장 주재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법령 등 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들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법령 등을 발

굴해 제·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과별 우수사례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진시는 이번 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규제개혁 개선과제

법령 개정 53건과 자치법규 개정 4건, 우수사례 5건 등 모두 62건을 발굴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사례로는 ▲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관련자 자격 정지 명확화 ▲ 푸드트럭 허용 자동차 확대 ▲ 경작목적의 사용·수익허가 요건 완화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완화 등이다.

반면 우수사례로는 ▲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관리전환을 통한 시민

편의 증대 ▲ 외국인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 행정 지원 ▲ 축사 양성화 관련 건축조례 기준 완화 ▲ 의·약업소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진시는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행정중심부처 및 중소기업음부즈만 등의 건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혁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태안군 체험관광객 유치 효과 '톡톡'

남면서 열린 한서대 해양교육원 '해양레저 체험교실' 성료

체험관광객 유치를 위해 태안군 남면 한서대 해양교육원에서 열린 '해양레저의 향연' 해양레저 체험교실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인 진례저 해양레저 체험교실을 찾은 이용객 수는 총 1,800명으로 집계됐다.

한서대학교가 주관하고 태안군이 후원한 이번 해양레저 체험교실은 여름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레저 관광 휴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면 곰섬 일대에서 개최됐다.

태안군이 가진 천혜의 해양 환경과 한서대학교가 보유한 우수한 인

적·물적 인프라가 만나 열린 이번 수상스키 체험교실 및 공연은 지역 내 해수욕장과 천리포수목원, 신두사구 등 뛰어난 관광자원과 연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끌었다.

특히, 바나나보트, 파워보트, 크루즈요트, 카약, 페달보트, 해양레저가상체험 등 즐거운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묘기, 파워보트 경주, 플라이 보드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레저 스포츠를 선보임으로써 태안군 관광 자원의 폭을 넓히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의 장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군은 앞으로도 천혜의 해양 환경과 한서대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접목, 관광휴양도시에 걸맞은 지역 관광이미지 제고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을 찾은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은 60만㎡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항공, 해양, 육상 등 실제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과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 '찾아가는 복지' 기동력 확보

맞춤형복지차량 보급·상당·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력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주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전용 차량을 보급, 상당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동력을 확보했다.

군은 전기차(SM3) 3대와 가솔린차(스파르) 4대를 복지부 및 환경부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자체 예산을 통해 구매해 7개 읍면에 배정했다.

이번 지원되는 복지차량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된 청양읍, 정산면과 은곡·목·청남·화성·비봉면에 배정되며, 내년에는 나머지 3개 면 대치·장평·남양면에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이 복지허브의 역할을 맡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사업과 찾아가는 복지상당,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업무, 민관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이다.

기본형(청양읍)과 권역중심동(정산면, 화성면) 읍면사무소의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했으며, 차량 및 방문 간호인력을 지원하고 대상자 지원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042)538-3030  
대전투데이 아산시 26-30 대동빌딩 7층





오늘의 하이라이트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20분)



달님은 선호의 도움으로 유경의 집에 몰래 들어 가지만 병수가 숨기는 바람에 엄마를 찾지 못했다. 세나는 선호가 달님을 도와줬다는 걸 알고 더욱 불안해하고, 세강은 마음의 집을 조금이나마 털기 위해 달님의 엄마를 달님이 입하는 식당으로 데려가고, 한편, 선호는 세나의 행적에 의구심을 품고 4년 전 근무기록을 재조사시키는데...

꽃피어라 달순이다 (KBS2 오전 9시)

소매치기로 인해 은술(엄채영)과 정옥(최명민)이 만나고 한바탕 싸움을 벌인다. 영화박현정은 태

성(임호)의 마음을 달래주고, 은술(엄채영)은 미령(조은숙)에게 상처받아 우는 윤재(김정우)를 위로해 주며 한층 더 가까워진다. 한편, 이해해(최철호) 죽 음 진상이 도마위에 오르자 태성(임호)은 불안해지 는데...

별별머리 (MBC 오후 7시55분)



내부의 적 지호(남상지)는 본인이 기사를 썼음을 밝히고 영 애(조경숙)는 가족들에게 섭섭해 하는데...

케이블 명화

도둑들 (OCN 오전 6시30분)

10인의 도둑, 1개의 다이아몬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팀으로 활동 중인 한국의 도둑 뺑뺑이와 예니 콜, 찰핀검, 잠파노. 미술관을 터는데 멋지게 성공한 이들은 뺑뺑이의 과거 파트너였던 마카오박이 제안한 홍콩에서의 새로운 계획을 듣게 된다.

여기에 마카오박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 감옥에서 막 출소한 금고털이 팬시가 합류하고 5명은 각자 인생 최고의 반전을 꿈꾸며 홍콩으로 향한다. 홍콩에서 한국 도둑들을 기다리고 있는 4인조 중국도둑 쉐, 앤드류, 즐리, 조니.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팅된 가운데 서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국과 중국의 도둑들.

팽팽히 흐르는 긴장감 속에 나타난 마카오박은 자신이 계획한 목표물을 밝힌다. 그것은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계획이 2천만 달러의 달콤한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이들은 태양의 눈물을 훔치기 위한 작전에 착수한다.

루시 (채널CGV 오후 5시50분)

평범한 삶을 살던 주인공 '루시' 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두뇌와 육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루시>

뇌를 100% 사용한 다?! 이론적 현실과 상상, 그 무한한 가능성의 만남! 10%, 인간의 평균 뇌사용량 24%, 신체의 완벽한 통제 40%, 모든 상황의 제어 가능 62%, 타인의 행동을 컨트롤 100%, 한계를 뛰어넘는 액션의 진화가 시작된 다!

평범한 삶을 살던 여자 루시(스칼렛 요한슨)는 어느 날 지하세계에서 극악무도하기로 유명한 미스터 장(최민식)에게 납치되어, 몸 속에 강력한 합성 약물을 넣은 채 감옥으로 운반하게 된다.

다른 운반책들과 같이 끌려가던 루시는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몸속 약물이 체내로 퍼지게 되면서, 그녀 안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아산시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아산시립도서관관장 권경자(관내년)는 가을을 맞아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다채롭게 운영한다. 이번 '독서의 달' 행사는 ▲ 송곡도서관의 무빙토이 오토마타 (관내 초등 4~6학년) ▲ 배방도서관의 나만의 컵 만들기 (초등 1~3학년) ▲ 둔포도서관의 초등 1~3학년이 참여하는 만들기(제한없음) ▲ 어린이도서관의 그림책 속 꽃 접편 만들기 (관내년) ▲ 남산도서관의 어른을 위한 민화소품 만들기 (60세 이상) ▲ 탕정온샘도서관의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밤 별자리 여행 (관내 가족 25명) ▲ 소룡도서관의 책표지, 책갈피로 변신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독서와 연계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연체 해방의 날'과 9월 중 금요일에는 대출권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한 'Book Free Day'를 운영한다.

9월 16일(오후 2시~5시)은행나무길에서는 단체기관 협력과 청소년의 재능나눔(메이시페인팅)이 펼쳐지고,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전시회 등 책을 매체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9월 독서의 달 행사는 [도서관별 독서문화진흥사업]에 의거 매년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서행사 개최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사전접수는 2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나 세부내용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산시립도서관 독서진흥팀 (041-537-3952)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아산=리ujung자

대전동대초,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



대전동대초등학교(교장 김영화는)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동안 3~6학년 영어캠프를 실시하여 영어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사용 경험을 제공했다.

영어담당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다양한 학습자료 및 교구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세심하게 지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더위를 잊고 온 몸으로 영어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충남도내 합기도 학생 페어플레이 돋보여

제9회 충청교육감기 학생 합기도대회 성료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주최하고 충남합기도 협회(회장 김영덕)와 청양군합기도협회(회장 이종희) 주관으로 열린 제9회 충청교육감기 학생 합기도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는 청양군수 공로패를, 이종희 회장은 중앙협회장 공로패를 받았다. 대회는 대전경기, 호신형경기, 호신술경기, 기복경기로 진행됐다. 경기결과 종합우승은 ▲충청부 아산탕정초등학교 ▲충청부 대명중학교 ▲고등부 부여정보고등학교 ▲클럽도장부 부여특사체육관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 심판상은 김태우씨, 최우수 선수상은 임윤섭씨, 최우수 지도상은 노찬종씨, 최우수 도장은 서인합기도검무관이 수상했다. 정담순 중앙협회장은 "합기도를 국내 및 전세계에 보급해 스포츠와 무예에서 진일보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삼범기자

부여도서관 "가을,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에 초대합니다"

부여도서관관장 김영심(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여 이용자가 더 다가가는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9월 1일부터 책꽂이 책을 읽읍시다! (책 속의 문화상품권 교환권 배포), '문학의 숲을 거닐다'(책의 제목과 저자를 맞추는 도서 퀴즈)의 행사를 시작으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저자 김영진 작가와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여 이용자가 더 다가가는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9월 1일부터 책꽂이 책을 읽읍시다! (책 속의 문화상품권 교환권 배포), '문학의 숲을 거닐다'(책의 제목과 저자를 맞추는 도서 퀴즈)의 행사를 시작으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저자 김영진 작가와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여 이용자가 더 다가가는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9월 1일부터 책꽂이 책을 읽읍시다! (책 속의 문화상품권 교환권 배포), '문학의 숲을 거닐다'(책의 제목과 저자를 맞추는 도서 퀴즈)의 행사를 시작으로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저자 김영진 작가와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여 이용자가 더 다가가는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공주시 일원, 9월 9일), 괴월호 잡지 배포(9월 20일~9월 22일), 독서의 달 기념품 배포(9월 5일~소진 시까지)등이 진행된다.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부여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biyib.go.kr)를 참고하거나 도서관으로 문의(☎835-2509)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부여=김태성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

Advertisement for cable and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s, listing various channels and their numbers.

Large advertisement for cable and satellite broadcasting services, listing various channels and their numbers under categories like Movies, Sports, News, and Music.



**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안보특강 실시**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 강당에서 300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특강을 실시했다.



**충남도교육청, 교육청 직원들 제3차 사랑나눔 헌혈 행사 실시**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1일 을지연습 시작과 함께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도교육청 현관 앞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헌혈버스에서 올해 제3차 사랑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충남대 로스쿨,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 충남대 로스쿨 서법진 교수(법학부)는 지난 8월 19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제3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국회의장상과 함께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 메디케어뷰티 실무과정 입학식**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이인호)는 21일 대학본부 4층 세미나실에서 지역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이 용이한 재취업과정 메디케어뷰티 실무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서산문화복지센터 '1박2일 어린이 독서캠프' 성료** 서산문화복지센터 어린이도서관(센터장 김영제)이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9일부터 20일에 걸쳐 초등 1~3학년 어린이 30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운영한 '도서관에서 1박2일 독서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청양교육지원청, 2017 을지연습 전시직제편성 훈련 실시**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은 21일 을지연습상황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쟁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비를 위한 개인과 조직의 임무 숙지를 위한 전시직제편성 훈련을 실시했다.

## 건양대, 다양한 취·창업 기회 제공 위한 '첫 문' 더욱 새로워진 취·창업동기유발학기 오픈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가 21일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서 학생의 취·창업 마인드 고취와 다양한 취·창업 기회 제공을 위한 <2017 취·창업 동기유발학기>의 첫 문을 열었다.

25일까지 4박5일간 진행되는 취·창업 동기유발학기는 2015년 건양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학생 대상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취·창업 동기유발학기는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취업의지를 강화하고 취·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기본기 확립, 선배 특강과 진로 고민 해소 등 본인의 명확한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도 세 번째를 맞는 취·창업 동기유발학기는 1회와 2회보다 더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갖고 돌아왔다. 정원희 건양대 창의인재개발



원장은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취·창업 동기유발학기의 핵심 컨셉은 '케어 역량 키우기'로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6시그마와 트리즈(Tryz) 자격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됐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또한 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예전과 달리 2,3,4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6시그마와 트리즈와 같은 자격증을 획득하는 동시에 취·창업 동기

유발학기 수료증을 부여해 향후 학생들의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강조했다.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취·창업 동기유발학기는 첫째 날에는 학생들의 취·창업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마인드톤 토크 및 대화법, 성취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6시그마와 트리즈 중 하나를 선택해 관련 내용을 습득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날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SWOT분석을 통한 창업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창업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넷째 날에는 취업트렌드와 성공사례를 알아보고 나만의 취업전략을 세우며 선배들의 취업성공기를 들어보는 취업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마지막날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취·창업 전략을 발표하는 취·창업 전략 경진대회가 열린다. 또한 21일 오전 개막식에서는 (주)에람(대표 김사문), (주)미나미(대표 이인숙), 해진산업(주)(대표 김형식), 주식회사 에프앤(대표 양지훈) 등 4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취·창업 동기유발학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팀에게 위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정복기자

## 청양향토작가 및 출향작가·전국작가 초대전

한국미술협회 청양지부, 25일까지 청양문예회관 전시실 개최



한국미술협회 청양지부(지부장 우제권)는 제9회 청양향토작가 및 출향작가·전국작가 초대전을 오는 25일까지 청양문예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향토작가전은 청양 출향 작가들 뿐 아니라 전국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돼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현대예술작품을 전시, 청양군민들을 위한 풍요로운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미술협회 청양지부는 미술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청양군내 이농들과 어르신들의 예술적 재능 발휘를 도와 작품을 완성하고 전시회에 참여케 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청양군이 후원하는 청양 향토작가전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돼 오는 25일까지 6일간 청양문예회관 소공연장 2층 전시실에서 계속된다. 청양=정성범기자

## 둔포노인회, 분회장 이·취임식



(사)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둔포면분회는 지난 18일, 둔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기관단체장 및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대 공근석(남, 82세) 분회장의 이임식과 제15대 이원우(남, 76세) 분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임 분회장에게 감사패 수여와 이·취임사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공근석 이임 분회장은 "지난 4년 동안 회원들의 많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원우 취임 분회장은 "그 동안 둔포면 노인회원들의 발전을 이끈 공근석 분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노인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5대 이원우 분회장은 지난 9일, 노인회원 43명중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4년 동안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도자원봉사센터-청운대학교 사회봉사단

## 자원봉사 연계 협력사업 업무협약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홍성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홍성군에 소재한 청운대학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17일 청운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이번 대학생 자원봉사 업무협약식에는 지순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이동훈 홍성군자원봉사센터장, 김경수 청운대학교 사회봉사단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청운대학교는 대학생 1인 1자원봉사 실천운동 및 특기와 재능기부를 홍성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개하게 되며, 충남도자원봉사센터와 홍성군자원

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학술연구 및 자원봉사에 대한 정보교류, 대학생 자원봉사자 육성과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청운대학교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이력을 1365봉사포털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활동 참여 학생들에게 평생기록으로 제공된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협력사항의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하여 3년간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내포=김정환기자



## 대전보훈청, 2017 을지연습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전시 비상사태 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2017년 을지연습을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1일 오전 6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직제 편성, 소산 및 이동, 비상급식 체환,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해 전시대비 공무원

비상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정부기관 안에서의 훈련에서 벗어나 일반국민의 참여를 통한 대국민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보사진전시회, 을지연습 국민참여관, SNS 이벤트 등 다양한행사가 진행된다. 송병배기자

## ● 동정 ●

### 벽화그리기 사업



박흥웅  
직장·공공장  
마을운  
동대전  
시험의  
회장은 21~22일까지 서구우명동 반송마을에서 직장회원 및 대전Y-SMU포럼 30여명과 함께 농촌희망드림 아름다운 농촌마을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

### 독립기념관, 개관 30주년

#### 제72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은 광복 72주년 및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와 역사학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상기 교수(충남대 국사학과)를 제13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그 시상식을 오는 8월 22일 오후 4시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강당에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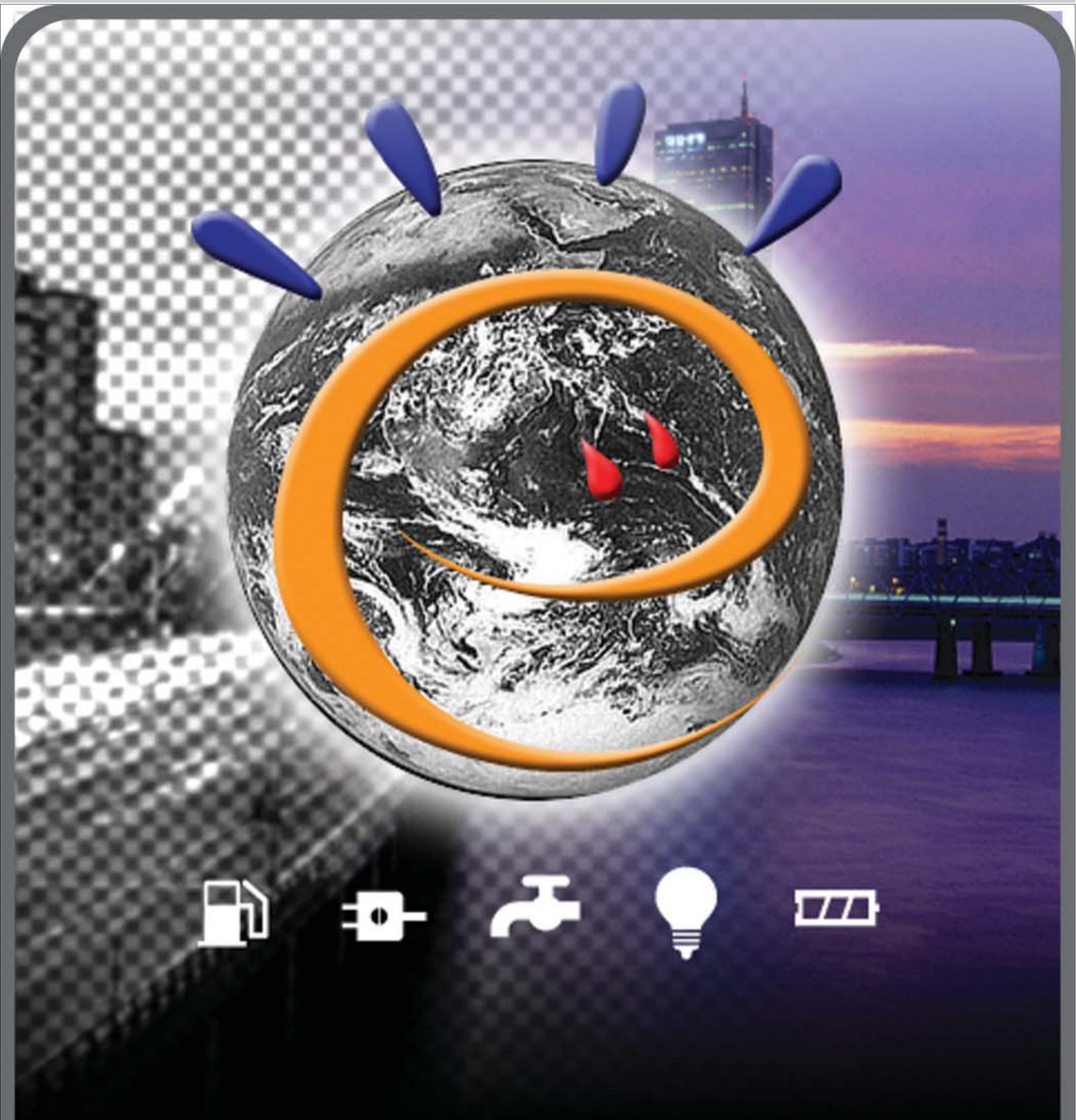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학술상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를 장려·촉진함과 아울러 연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5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제1회 수상자로 조동걸 교수(국민대)가 선정된 이래 매년 광복절을 기해 수상자를 선정·시상했다. 학술상 제정을 통하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인식 이해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번 제13회 학술상 수상자는 '호서유림의 사상과 민족운동'(지식산업사, 2016)으로 호서지역 여러 유림 학파(남당(南塘)학과, 화서(華西)학과, 연제(淵齋)학과 등의 형성, 그 대표적 구성원들의 생애와 사상, 그들의 현실인식과 독립운동양상에 대해서 분석한 역작이다. 호서유림들이 1890년대부터 격렬한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했으며, 이후에도 상소 투쟁, 자결순국투쟁, 3·1운동, 민족교육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그 사상적 기반과 인적 연계망을 각종 고문서 자료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구명하고 있다. 찬안=김정환기자

## ■ 결 혼

▲정은모 전국매일신문 부국장 여혼(장녀 윤진양)= 일시: 9월 23일(토) 낮 12시 장소: 마이웨딩홀 4층 하우스 홀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9번길 10 ☎(042) 527-050, 연락처: 정은모 부국장(010-8620-2416)





##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환경에너지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력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DS 주식회사 대생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순용

 KR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aT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KR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esan Forestry Cooperative

 KR 한국농어촌공사 금산지사

금산공판장G마트